

## [ 목포권 ]

# 목포 법질서 유지 年 5억 든다

市, 불법 주정차 단속·청소 비용 등 지출…시민 의식개선 절실

물레 벼려진 쓰레기나 불법 주·정 차된 차량 등을 처리하는데 목포에서 만 한 해 5억7천여만 원이 투입되는 등 시민들의 준법 의식부족이 혈세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목포시는 올해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 주·정차 균절, 각종 미납 세금 등에 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부문별로는 지난 1월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CC-TV 9대를 설치

하는데 4천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또 선원들이 바다에 물레 벼리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바다 청소비용으로 매년 1천200만 원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일부 상인들이 불법으로 거리에 내건 현수막 등을 철거하는 비용도 매년 600여 만 원이 들어가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과 사후처리에 필요한 고지서 인쇄비와 통신비용, 등기우편료, 단속 요원

인건비 등으로 올해 2억5천575만3천 원을 사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국민주택 상환금 등을 제재 납부하지 않은 시민에게 체납 고지서와 독촉장 등을 보내는 비용도 2억4천885만7천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단속과 계도활동을 통해 불법사례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예산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증원해야 하는 등 낭비요인이 많은 만큼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절실히”고 말했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 목포대, 미래형 선박 콘테스트 개최

### 내달 6일까지 참가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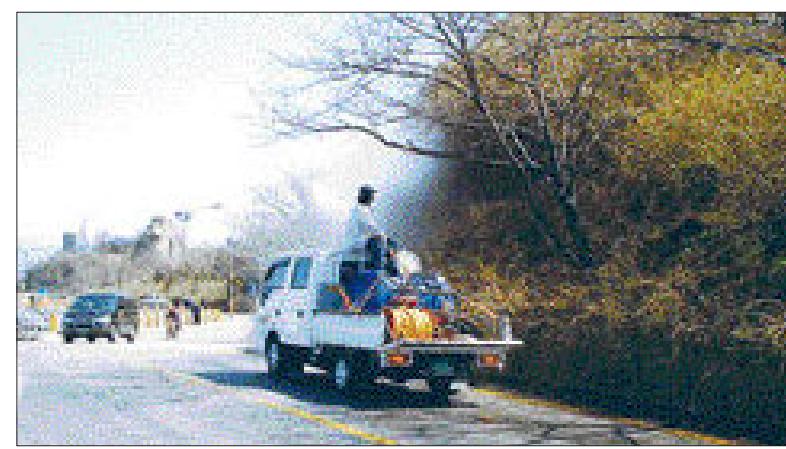
목포대가 전남도의 전략산업인 조선 산업에 대한 관심과 창의력을 높여 지역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 3회 미래형 선박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목포대 누리(NURI) 조선인력양성사업단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선박과 해양에 관심 있는 중·고·대학

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박 설계’와 ‘기자재 설계’(대학생만 가능) 분야로 나눠 내달 6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시상 내역은 선박 설계분야에서 대상(2팀) 표창 및 상금 각 100만원, 금상(2팀) 표창 및 상금 각 70만원 등이며 기자재 설계분야는 대상(1팀) 표창 및 상금 80만원 등이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 유달산축제 꽃길 단장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3일간 열리는 목포 유달산축제를 앞두고 꽃길 정비작업이 현창이다. 이번 축제는 공연 18종, 체험·부대행사 24종 등 모두 45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축제기간에는 복합문화 타운에서 회 축제도 열릴 예정이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 光 明 日 記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여 수 653~8444 (686~8584)	목 포 276~9200 무 암 452~8535	나주시 332~5544 니주군 332~7764 화 순 374~4423
광 양 792~8111 보 성 853~9700	해 범 534~5151 암 도 554~6677	장 성 392~7000 담 양 383~8111 영 암 473~2340
순 천 746~8111 고 흥 833~9900	영 광 351~0055 신 안 243~3758	영 암 863~8822 진 진 543~0100 광 신 944~0444
구 레 783~8111 곡 성 362~8111	강 진 433~8355 평 합 324~8111	고 청 564~1919 순 창 653~6155

## “신안 해변을 아름답게”

### 쓰레기 수거 등 정화활동

신안군에 해변이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신안군은 이달부터 매월 첫째와 셋째 주 금요일을 ‘아름다운 해변 가꾸기 날’로 정하고 자은 백길 수목욕장과 중도 우전 해수욕장에서 공무원과 주민들이 함께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23일 우전 해수욕장에서 실시된 해변 가꾸기 날에는 공무원과 주민 등 200여 명이 힘을 합쳐 해수욕장과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 55t

을 수거하는 등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벌였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백길 해수욕장에서 공무원과 주민, 사회단체 회원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여해 20t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변으로 변모시켰다.

군은 오는 6월 13일 해수욕장 개장 이전까지 군내에 산재한 크고 작은 해수욕장 300여 곳에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전 직원을 4개조로 편성, 아름다운 해변 가꾸기에 투입할 계획이다.

/신안=조남원기자 ncho@kwangju.co.kr

### 한일지도판매(주)

☎ (052) 1409, 훤 010-2468-1409  
(자신동점 범일점)

### 2007 최신 광주·전남 책 판매개시!!

#### 티시제품 미기록된 부분

13P 범일 APT없을 청진교가 신

도부와 APT로 바뀌지 않았음.

13P 첨단 2구주 주공APT 배치도 21

14P 원룸마을, 하늘산마을, 2차 해

계 주 번역

20P 수원지구 상업지역 변경

28P 보령APT 배치도 없음

29P 삼성지구에서 신기리를 나가는

계통설치 석체인테니와 있음.

38P 삼성지구 비운디리 다 비운디리,

티사·다른

40P 대주 포화리 APT 배치도 안나왔음

42P 미래 네리 안나왔음

49P 척 기운데 김치터운으로 연결된

계통설치 없음

50P 호반비니디움 APT 2차 안나왔음

51P 신지시 이주단지 배치도 없음

56P 김시로 위로 풍물동으로 연결

계통설치 있음

56P 흥현1동 1차, 2차 주공APT 없음

57P 호반2동 3차, 4차 APT 배치도

없음

57P 진원 택시기지인구 택시기지인

구나원으로 바뀌지 않았음

61P 험현 apt인네 구 빛고을 APT로

나웃음

타사제품과 비교하여

잘 판단하여 선택하십시오!

문집동점

☎ (062) 527-6310

☏ 011-9433-6310

### 효성공인중개사

☎ (051) 621-6024 훤 011-622-4207  
(용봉지구 하이티목교 앞)

#### 대자매매

(교회, 원·투룸부지)

· 북구 양신지구 대지 1,000평,

500평 3면도로전 평당 135만

교회, 원·투룸부지, 물류창고

사무나, 투자적합

#### 불류창고, 공장매매

· 광산구 수원동 지연지역 변경

28P 보령APT 배치도 없음

29P 삼성지구에서 신기리를 나가는

계통설치 석체인테니와 있음.

38P 삼성지구 비운디리 다 비운디리,

티사·다른

40P 대주 포화리 APT 배치도 안나왔음

42P 미래 네리 안나왔음

49P 척 기운데 김치터운으로 연결된

계통설치 없음

50P 호반비니디움 APT 2차 안나왔음

51P 신지시 이주단지 배치도

없음

56P 김시로 위로 풍물동으로 연결

계통설치 있음

56P 흥현1동 1차, 2차 주공APT

없음

57P 호반2동 3차, 4차 APT 배치도

없음

57P 진원 택시기지인구 택시기지

구나원으로 바뀌지 않았음

61P 험현 apt인네 구 빛고을 APT로

나웃음

타사제품과 비교하여

잘 판단하여 선택하십시오!

문집동점

☏ 011-9433-6310

☏ 011-9433-6310



### 겨울 대파 수확

진도군 군내면 안농리 들판에서 농민들이 겨울 대파를 수확하고 있다. 올해 겨울대파 재배농가들은 과잉생산으로 대파 가격이 폭락해 산지 폐기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

/위저랑기자 jrwi@kwangju.co.kr

## 대형마트에 목포상권 고사 위기

(SSM)

### 롯데쇼핑 진출…‘동네마트’ 줄도산 우려

대형유통점(SSM·Super Supermarket) 입점과 전남 최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목포지역 중소형 마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

까지 무혈 입성하게 돼 중소형 마트 등의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롯데쇼핑이 최근 지역 유통업체인 ‘빅마트’의 목포 하당·연산점

을 인수해 5월 중 SSM으로 탈바꿈해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동네 중소형 마트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의 관계자는 “2년 전 한 대기업

이 SSM 입점을 시도했다가 중소 상인들의 반대로 좌절된 적도 있는데 이번에는 빅마트를 인수해 무혈입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빅마트 하당점 근처에 있는 중형 마트 주인 김모(56)씨는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이들의 영업이 본격화 되면 겨우 명맥을 유지해 오던 중소형 마트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표류중인 대형마트 규제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실질적인 중소유통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 목포시여단협 새 회장에

#### 방예순 주부클럽 지부장



목포시여성단체협의회 제15대 회장은 방예순 회장에 방예순 대한주부클럽 목포시지부장이 선출됐다.